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23.(월) 08:00 (2026. 11. 24.(화) 석간) 배포 2026. 11. 20.(금) 14:00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현안 점검… 국제 협력·공급망 대응 모색

- AMD·엔비디아·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상황 및 성과 확대 방안 논의 -

- 메모리·기판 등 핵심 부품·소재 수급 애로와 美 중간선거, 엔비디아 관련 주요 현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

【관련 국정과제】 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월)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에서 국내 AI반도체 생태계 기업 2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AI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참석기업(총 24개사) : 글로벌 빅테크 한국지사(AMD, 엔비디아, 인텔), NPU(퓨리오사AI,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딥엑스, 모빌린트), DPU·CXL(망고부스트, 파네시아, 엑시나), AI 최적화(모레AI, 노타AI, 래블업), AI 모델(업스테이지), 스토리지(파두), AI 인프라(프렌들리AI, 디노티시아, KTNF), 피지컬AI(리얼월드, 엑스와이지, 스카이인텔리전스), AI 설계(엔닷라이트, 알세미)

이번 간담회는 이달 초 AMD, 엔비디아, 인텔 등 최근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협력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메모리·기판 등 핵심 부품·소재 수급 불안과 주요국 정책 변화 등 글로벌 AI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AMD는 퓨리오사AI·망고부스트와 개방형 이기종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엔비디아는 SK텔레콤·리벨리온과 NVLink Fusion 기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인텔은 국내 23개 기업과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는 등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저전력 D램(LPDDR) 등 메모리와 패키지 기판 등 핵심 부품·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적은 스타트업과 중소 팹리스는 안정적인 부품 확보와 원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AI·데이터센터 정책 변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전략 변화 등 대외 여건도 국내 기업의 투자와 사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확대 및 사업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석 기업들은 피지컬 AI, 이기종 AI 인프라, 개방형 표준·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 실증과 사업화 등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메모리·기판 등 핵심 부품·소재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메모리·부품 기업과 AI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구매 물량이 적은 스타트업과 중소 팹리스의 안정적인 부품 확보를 위해 수요·공급 정보 공유 등 기업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급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참석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AI·데이터센터 정책과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외 정책 및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산 AI반도체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메모리 등 핵심 부품·소재 수급 불안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핵심 부품·소재 수급 등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강용 (044-202-6230)
		담당자	사무관 손희수 (044-202-6232)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